

위가 오히려 소송을 지휘하고, 법을 따라야 할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며 집행하고, 법에 반하는 규칙과 지침을 만든다. 무소불위의 막나가는 선관위를 이미 경험한 입장에서 최근 각종 부패와 비리, 북한과 중공의 해킹 등으로 감사원 감사, 권익위 감사,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거부하는 선관위의 꼴볼견은 낫설지 않다.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전국적으로 퍼져 무려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또 후보자나 정당이 원고가 된 30곳의 선관위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이상한 투표지와 엉망인 투표지 보관상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한 투표소, 유권자가 투표했음에도 아예 0표 처리되어 있는 특정 투표소의 개표 결과, 전자개표기의 조작 등이 발견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리 선관위 이후 각 선거구 선관위에서 투표지가 증거보전 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신권 다발 같은 뽀뽀한 투표지들과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된 10개가 넘는 삼립빵 박스 사전투표지 보관 상자들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거짓말 변명은 부정선거임을 더욱 확증시켰다. 재검표가 되면,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공표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수소법원은 180일 이내에 재판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부정선거의 진실이 곧 드러날 줄 알았다. 종전의 전례대로 거의 대부분 소송이 100일 전에 재검표가 이뤄지고, 재판도 결론이 났다. 그런데 김명수가 수장이고, 조재연이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대법원은 1년 동안 단 1건의 선거무효 소송 재판도 열지 않았다. 440일이 지난 2021년 6월 28일야 첫 재검표가 진행되었고,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한 건도 열지 못했다(그런데도 기각판결을 쏟아냈다).

인천 연수읍의 경우 첫 재검표였음에도 무려 1000표가 넘는 무효표가 나왔다. 대법관들은 당황해서 무효표를 줄이고 줄였고, 최종적으로 294표가 무효표가 되었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섞인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선색깔이 다른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스카치테이핑 된 투표지 등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볼 수 없었던(투·개표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투표지 등 이상 투표지 수천 장이 쏟아졌다.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관외 사전투표지들이 어찌하여 일관된 이상패턴을 보인단 말인가. 그런데도 대법관들은 대부분의 이상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표 현장 사진도 못 찍게 방해했고, 찍은 것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가짜투표지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그 이후 대법관들은 추가 재검표 하는 것을 꺼렸고, 갖은 핑계를 대며 재검표를 거부했고,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부했다. 대법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어떤 검증도 허락받지 못했던 것처럼 비겁했다.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내동댕이쳤고, 법정에서 도망치기 바빴다.

심지어 영등포를 재검표장에서는 투표 보관 장소의 봉인이 바뀌치기 됐다. 법원에 보관된 투표함도 손을 댄 것이다. 결괏값만 맞았지만, 역시 수많은 가짜투표지가 등장했다. 양산읍에서는 투표지 무게가 원래의 용량과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 파주를 재검표에서도 빨간 화살표가 찍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투·개표록에 없었던 투표지들이 발견되었다. 파주읍은 특히 투표록에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지, 1장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은 투표지가 투표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재검표 현장에서는 투표록에 기재된 이상 투표지들이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투표개수인 결괏값은 맞았다. 즉 투표 당시의 투표지들이 없어지고, 재검표 당시의 투표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필자는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담긴 투표지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린당하였음을 목도했다. 그 직접적 원인은 선관위의 법 무시와 무법 판을 깔아준 대법원에 있다.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을 비교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선관위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은 이미지 파일을 보지도 않았고, 공개하라고 소송지휘를 하지도 않았다.

선관위와 법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선거 관련 증거를 추적하면, 두 기관이 연합해서 법을 무시하고 무법을 일삼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고, 위법한 규칙을 삭제해야 한다. 대법관이나 판사가 각급 선관위 수장이 되는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투명성과 무결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의 사전 검증, 사후 검증이 그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되고 일상화되어야 한다. 법원도 피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선거무효 소송 관련해서 적극적인 석명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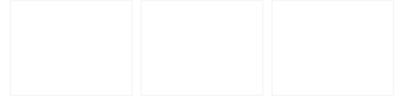
라디오 이슈 토론



팩트와 허위가 구분되지 않는 시사 유튜브, 대책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김상욱 "의원 단독방 유출자 색출? 이것이 전체주의" 톨스토이 문학상 김주혜 "미국인? 나는 뻣속까지 ... 김성태 "與 비대위원장? 외부 집도의" vs 최재성 "... "하루 종일 뉴스 봐요"...나도 '게임 트라우마'?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재명 "이분 꼭 찾아 달... 동전 넣고 간절하게 드르... 신음하는 금수강산... "생존...



공감 많은 뉴스

- | 시사 | 공감별 |
|---|---|
| 1 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받는 것"...선관위 직격탄 이... |  |
| 1,674 | |
| 2 "이런 대통령 없었다" 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현재 당혹 |  |
| 1,588 | |
| 3 경찰에 막힌 트랙터 행렬에 시민 수천 명 가세... 남태령 고개서... |  |
| 1,136 | |
| 4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2016 촛불집회' 한목소리..."민... |  |
| 785 | |
| 5 "쓰레기차 가고 분노차 오는 상황 걱정" 이재명 직격탄 이준석 |  |
| 527 | |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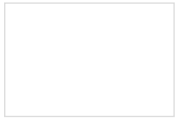
㉔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 ▶尹대통령, 8월 초 '짧은 휴가' 떠날 듯...하반기 정국 구상
- ▶한미일 정상, 내달 만난다..."3국 협력에 중요한 전기"
- ▶한미일 3국 정상, 내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서 만난다
-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국정과제 추진 책임자" 논설위원실

최고예요 **0** 훈훈해요 **0** 어이없어요 **0** 속상해요 **0** 화나요 **0**

올려 **0** **내려** **0**

AD 英◆ 醫명試◆취◆ 紐질쉬◆◆◆◆ 以◆ 鐵淵밖 遊A벨~!



계약금 대폭 축소로 월 렌 드비용까지 내려갔다"...

Taboola ◆ 블랙블로그

랭킹 뉴스

조회순 댓글순 올려순

- 1 유재석, 이례적인 시국 언급 "마음 답답한 현 상황, ...
- 2 마사지사과 성매매...유명 피아니스트, 약식명령 ...
- 3 차승원·박신혜, 알짱없이 '빈손'...'핑계고', 지상파'...
- 4 "이런 대통령 없었다" 탄핵서류 안 받는尹에 현재 ...
- 5 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받는 것"...선관위 ...
- 6 충격! 이강인 태도 논란 터졌다..."자기가 스타인 ...
- 7 갑작스런 사망...리키 헨더슨은 누구였나 '야구 역...
- 8 "쓰레기차 가고 분노차 오는 상황 걱정" 이재명 직...
- 9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2016 촛불집회' 한목소리.....
- 10 '손 王자'도 그의 작품? '尹 비선 의혹' 건진법사의 ...

1/2



특커들의 선택

- 1 안녕하세요 강남 의대생 교체 살인 사건 피... (207)
조회 147,529 추천 1,891
- 2 한국남자들에게 일본여자 환상 갖지말라고... (165)
조회 68,394 추천 344
- 3 남친 카드 긁었다가 욕 먹음.. 그 뒤로 서먹... (757)
조회 147,184 추천 1,401
- 4 와 아일린팬덤은 대체 왜이러는거임? (204)
조회 53,985 추천 355
- 5 애들아 비밀 하나씩 적고가자 (229)
조회 61,696 추천 62

1/3



썰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반응은?

더보기

기사에 대해 최초 썰 작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썰작성하기

링크로 이야기하는 네이트 썰에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與 "내란 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
정보사, 비상계엄 앞두고 北인민군복 구매...
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받는 것".....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이틀째 대치.....

정용진 "트럼프와 심도 있는 대화"...재계, ...
소환 통보일 D-3...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
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노차 오는 상황 격...
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내란 사태' ...
'버거 보살' 노상원 점집 후기 눈길..."곧잘 ...



네이트 홈으로

뉴스 홈으로 맨위로

